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Regional Festivals
-focusing on the Andong maskdance festival,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and Iksan Seodong festival-

서희석* · 윤정현**

Seo, Hui-Seok · Yoon, Jung-Hyun

< 목 차 >

- I. 서 론
- II. 성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
- III. 지역축제의 사례분석
- IV. 결 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많은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지자체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효과를 기대하나, 지역축제의 성공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이기 위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사례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은 지역축제의 주제, 주민참여, 조직의 네트워킹과 안정성, 평가, 전문성, 인프라이었다. 이외에 인프라 요소를 추가하여 6개의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분석사례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와 일반축제인 익산서동축제를 선정하여 이들 축제간 변수들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체로 성공한

논문 접수일: 2006년 11월 10일

이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언론학부 교수

** 원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것으로 평가받는 축제일수록 성공요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명쾌한 주제, 주민참여의 증대, 조직의 네트워킹과 안정성 증대, 객관적인 평가, 전문성의 향상, 축제인프라의 구축이 충족되어야 한다.

□ 주제어: 지역축제, 성공요인

Most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expect that their local festivals bring positive effects, but it is not easy to meet their expect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tual local festivals by focusing on what are the key criteria of their success. Throughout precedent study, we developed the six criteria: the them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host's networking capabilities, evaluation tools, expertness, and infrastructures that also consists of six analytical variabl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of the key criteria among two groups, successful and unsuccessful.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successful local festivals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 on the six criteria than unsuccessful one had. Therefore, to become more successful local festivals, the host of the festival should consider the six criteria from the beginning of planning

□ Key word: Regional festival, Success factors

I. 서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별로 많은 지역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웰빙이나 여가문화, 주 5일제 근무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지역축제이다. 필요성에 의해 지역축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지역간 혹은 지방정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축제간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많은 지역축제 프로그램들이 비슷해지고, 지역축제의 특징이 없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더불어 왜 지역축제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으며, 의지는 있으나 이를 잘 집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가 성공적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보다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역축제의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성공적인 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지역축제의 성공적 요소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사례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를 선정하였다. 사례선정의 배경으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평나비축제는 국내의 성공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동축제는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성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성공축제와 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II. 성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선행연구

1. 성공에 대한 관점

무엇을 지역축제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김춘식 교수는 축제의 주최 측, 관람객, 지역사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았다. 첫째, 축제 주최측의 입장에서 축제의 구성과 운영상의 효율성 여부이다. 여기에는 축제방문객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축제 추진기구와 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재정 수입과 지출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둘째, 축제참여자나 방문객의 입장에서 축제에 참여(관람)이나 서비스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는지 하는 점이다. 셋째, 지역사회 입장에서 축제가 지역사회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며, 문화적 영향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축제의 성공여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춘식, 2005). 이외의 다른 평가기준으로는 지역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즉, 지역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발전, 새로운 조직, 새로운 창조기회가 얼마나 마련되었는가?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시주체가 단순히 주최자, 실행본부로서의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준비과정에서 여러 경험, 만난 사람들, 어려움의 극복 등이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흥재, 2005; Milman & Pizam, 198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독특한 주제로 체계적인 구성과 축제 운영을 통해서 재정 효율성을 꾀하고, 많은 축제 방문객을 유인하여, 축제 전반에 걸쳐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문화와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어 지역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성공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

나 큰 관점에서 보면 공통성이 많았다. 송태갑(2004)은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요소로 주제에 대한 컨셉의 명확화, 추진주체의 건실성, 홍보 및 관람객 유치의 참신성, 관광객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지역민과 관람객의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지역적 특성 부각을 들었다. 한양명(2005)은 요사코이소란마츠리 축제를 통해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으로 8가지를 들었다. 먼저 축제 본연의 의미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적합성 여부이다. 셋째, 범세대성을 갖춘 연행조직의 활성화이다. 넷째, 축제의 경제적 자립성이다. 다섯째, 자발적인 참여와 경비 부담, 그리고 지역별 분담운영제를 포함한 운영의 자율화이다. 여섯째, 축제 공간의 다변화이다. 일곱째, 중심적 연행의 확실성과 동시대적 효용성이다. 여덟째, 축제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 모색이다. 임재해는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2000:205-236). 먼저, 축제의 지역적 특성화를 들었다. 축제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확보했을 때 세계적인 축제로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독창성을 획득하여야 한다. 유일무이한 축제의 소재는 세계적인 수 있다. 셋째, 축제 주체의 민중성을 들었다. 즉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축제의 문화산업화이다. 축제는 문화를 생산하고 축적하며 수용되는 문화산업의 현장인 것이다. 다섯째, 축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전문성은 축제 주제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한다. 문태현은 안동의 탈춤페스티벌이 성공하게 된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2004:15-16). 먼저, 지방정부와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활한 파트너십 둘째, 객관적인 평가와 그 결과의 피

<표 1> 지역축제의 성공적 요인

	송태갑	한양명	임재해	문태현	정강환
주제(테마)	0	0	0		
주민참여		0	0		0
예산확보		0			
조직체계	0	0		0	0
평가		0		0	
축제전문성			0	0	
문화산업화			0		
지역 특성화	0	0	0		0
관람객 만족	0				
중앙정부지원					0
기업후원					0
홍보 및 마케팅	0				
중심적 연행		0			

드백 셋째,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으로 보았다. 정강환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변수로 크게 5가지를 들었다(1996:69-79). 먼저 지역만의 지역적 주제인가이다. 둘째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여부이다. 셋째로, 축제조직이 민간주도의 상설기구인가이다. 민간주도의 기구를 토대로 할 때 자연스럽게 축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보장되고 애착심이 고양될 수 있다(노병찬, 1996). 넷째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다섯째로, 기업후원이나 협찬을 활성화해야 하며, 특히 물품협찬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으로서는 재고처리, 재정적 부담감소, 자사상품 전시 등의 다양한 효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지역축제의 성공 변수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분석기준

선행연구에서 중첩성이 높은 변수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독창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주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특성화, 축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축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전문성이었다. 지역특성화 요인은 지역축제가 얼마나 지역적인 요소나 문화가 반영되었는지의 문제로 판단되어 주제 변수와 통합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축제공간과 관련된 인프라 변수를 추가하였다. 변수의 추가이유로 성공적으로 축제가 잘 진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치루기 위한 물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연시설, 넓은 주차장, 축제장의 접근성, 화장실, 숙박시설, 전시관 등과 같이 축제를 위한 물적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며,

<표 2> 주제별 지역축제의 분류

주제	축제 사례
지역특산물	금산인삼축제, 익산 돌문화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프랑스 망퐁레몬 축제, 강진청자문화제
꽃(식물)	남원 허브축제, 고양 꽃 축제, 안면도 꽃 박람회, 고창 청보리축제, 네덜란드 튜립축제
음식	광주김치축제, 발효식품 엑스포, 민헌 맥주축제, 홍콩요리축제
역사적 인물	남원춘향제, 익산서동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영국세익스피어축제
공연	춘천인형극제, 남양주 공연축제, 거창연극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프랑스아비뇽축제
음악	전주세계소리축제, 보성소리축제, 몬트리얼국제 재즈 페스티벌
곤충	함평나비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지역적 특성	김제지평선축제, 부여백제문화제, 전주풍납제, 일본삿포로축제
영화	전주국제영화제,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이러한 편의시설은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 주제

지역축제의 주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은 해당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곧 지역정체성이며 향토성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공동이념, 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잘 보관하고 이들을 축제의 형식으로 잘 풀어낼 때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결합한 표현으로서 단순한 자연자원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축제의 소재를 보면 <표 2>와 같다¹⁾.

2) 주민참여

지역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경우 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축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소수의 예술가나 이벤트 업자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축제에 있어 주민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주차관리나 안내, 질서유지와 같은 자원봉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축제에서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자원봉사자로 유인하는가 여부에 축제 성공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을 극대화하고 축제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축제진행인력을 크게 늘려주는 효과를 가진다. 축제 참여를 통해서 지역주민으로서 긍지, 자기계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는 축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당장에는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축제 저변을 넓고도 튼튼하게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역의 축제전문가를 양성하며 축제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3) 추진조직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축제를 끊임 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관적이기 위해서는 축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

1) 정강환교수의 분류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 순환보직제 의해서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속 바뀐다. 담당 공무원이 어떤 마인드인가에 의해서 축제는 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간기구는 축제를 주최할만한 재정적 여건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진조직 구성원들간 그리고 관련 조직들과 어느 정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가의 여부도 축제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축제의 운영주체는 관 주도형, 민 주도형, 그리고 혼합주도형으로 구분된다²⁾. 관 주도형은 공익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용이한 반면 민 주도형은 능률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혼합주도형은 이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충형이다. 장기적으로는 민 주도형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지역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실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주체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주체의 구성과 네트워킹 및 안정적 추진구조를 갖추는 것이 지역축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4) 축제평가

지역축제가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가 필요하다³⁾. 객관적이고 철저한 축제평가를 통하여 축제방문객들의 성향과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평가의 생명은 객관성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축제평가에 대한 용역을 축제집행자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평가가 부풀리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축제의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5) 전문성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문화지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해당 지역축제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문화지식으로 축적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지역축제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축제전문가는 매우 드문 현실이어서 주로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획이벤트사

2) 현재의 많은 지역축제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 주도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되 민과의 협력체계의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문화관광부축제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으로는 크게 7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주민참여, 홍보 및 안내, 운영행사진행전반, 축제프로그램, 쇼핑 및 음식, 외국인 수용태세, 숙박 및 연계 관광 등이다.

에 통째로 지역축제를 맡기는 현실이고, 지역적 차별성 없이 많은 지역축제들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많다. 축제추진위원회나 담당공무원 중심으로 행사나 축제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역단위에서 가장 효과를 빠른 시일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문화단체나 지역축제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여 축제에 대한 전국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축제들이 있는가를 현장방문하고, 나아가 해외축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단기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순환보직제로 되어 있는 축제담당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문화행사에 대한 강화를 집중적으로 축제추진조직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축제인프라

축제가 보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들 문화기반시설간 동선을 연계하여 축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⁴⁾. 성공적으로 축제가 잘 진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치루기 위한 물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넓은 주차장, 축제장의 접근성, 화장실, 숙박시설, 전시관 등과 같이 축제를 위한 물적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러한 시설들을 일시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표 3> 지역축제 성공요인 분석 기준

성공요인	구성 내역
주제	- 지역적 특성 반영 정도 - 이미지 형상화 용이성
주민참여	- 자원봉사 활동 정도 - 프로그램 참여 정도
조직	- 운영주체와 조직간 협력 정도 - 조직의 안정성
평가	- 평가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 정도 - 평가의 중요성 인지 정도
전문성	- 연구기관 유무 - 축제 주제와 운영에 대한 전문성
축제인프라	- 축제 장소 적절성 - 축제편의 시설 확보 여부

4) 여기에서 인프라는 주로 물적 인프라 즉,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과 기반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축제와 관련한 인적 자원도 포함된다.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시설물들을 조금씩 확충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지역축제의 사례분석

분석대상 사례로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평나비축제와 그리고 일반적인 익산서동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축제간 비교를 통해서 분석변수가 축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1. 분석사례의 개황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시가 탈춤을 문화축제로 개발하여 세계무대에 소개함으로써 전통탈춤의 보존발전과 계승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동을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개발하여 관광산업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1997년부터 안동시의 주요 문화정책으로 채택되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시기는 해마다 9월 마지막 금요일에 시작하여 10월 첫째 일요일에 끝나며 10일간 지속된다. 축제 장소는 안동시내 전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행사내용은 크게 탈춤행사, 민속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탈춤행사이며 유명 탈춤행사는 거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외국 단체들도 참여한다. 또한 이 축제는 탈춤과 병행하여 안동의 고유한 전통 민속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문태현, 2004:8)

함평나비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역사는 길지 않지만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나비를 소재로 매년 5월 어리이 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성공을 이용하여 '나르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특산물을 청정의 이미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경험을 살려 2007년에는 국제곤충 엑스포로 더 크게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익산서동축제는 1969년 5월부터 익산군에서 시작된 마한제에서 유래하며, 마한민속예술제가 2003년부터 변경된 것이다. 마한민속예술제는 지난 1995년 구 이리시와 구 익산군의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탄생되었다. 1996년과 1997년에는 매년 행사가 작은 규모로 진행되었다가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시민의 날과 더불어 보다 큰 규모로 축제가 진행되었다. 2003년부터는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키자는 의미에서 익산서동축제로 개명하여 현대화된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축제의 주 내용은 서동선화의 설화와 익산 문화유적의 연계성을 중심으

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2. 사례의 분석

1) 주제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제가 얼마나 창의적이며,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얼마나 잘 형상화할 수 있는 가도 중요하다. 이러한 주제의 독창성과 이미지의 선명성은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안동에는 국내 탈 중 유일하게 국보 121호로 지정된 하회탈과 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6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997년부터 안동지역에 전승해 내려오는 하회탈춤⁵⁾을 소재로 시작되었고, 이런 점에서 지역적인 문화자원을 충분히 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축제의 주제는 현재 전해 내려오는 하회탈 10개를 모티브로 하여 매년 한 개의 탈을 그 해의 주제 탈로 선정하여 축제의 상징으로 삼았다. 2005년의 경우에 축제의 주제는 “할미의 억척”이었다⁶⁾. 축제의 중심적 연행으로서 탈춤은 신명풀이를 통해서 그 의미와 기능을 수행한다. 신명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즉, 신령스러운 기운이다. 이 신기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이 곧 신명풀이다. 이러하듯 인간의 심신에 응송거리고 있던 신명이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다른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일치되는 행복한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함평나비축제의 주제는 나비를 중심으로 곤충, 자연을 소재로 하였다. 주제는 고정적으로 “함평으로 나비 보러오세요”이었으나, 부제를 약간씩 변경하였다. 2005년의 경우에는 “나비와 곤충과 꽃이 만드는 미래의 세계”로, 2006년의 경우에는 “나비의 비상! 2008 함평세계

5)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으로 구분된다.

6) 할미는 생산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나이이면서도 생산에 대한 의지를 접지 않는 억척스런 인물이다. 할미가 처한 현실은 그녀의 고부라진 허리와 초라한 행색, 손에 든 쪽박으로 표상된다. 그녀의 고부라진 허리는 고된 노동의 결과이고 초라한 행색과 쪽박은 그녀의 삶의 모습과 살림살이를 거뭇 없이 드러낸다. 할미는 삶과 생산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툼툼이 베를 짜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성에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과 세월의 진행에 맞선다. 할미는 남성 중심의 사회 희생자로만 남아있기를 거부한다. 가난한 살림살이에서 영감이 어렵게 구해 온 청어를 독식하다시피 함으로써 그녀가 영감의 의지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임을 드러낸다.(안동대 지역개발연구소, 2005)

나비·곤충엑스포”로 부제를 정하였다. 주제와 부제에서 나비축제는 나비, 곤충, 꽃, 자연 등이 중심적 소재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비를 중심으로 곤충과 꽃의 주제는 환상적 이미지, 동화, 환경, 어린이, 추억 등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와 청춘남여의 사랑, 어른들의 추억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하면서 특히 도시 관광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준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축제에 가면 무엇을 볼 것인가가 비교적 분명한 것이 장점이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저공해 청정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 생태축제인 것이다.

서동축제는 국경을 넘은 사랑이 주제인 서동요를 배경으로 한다⁷⁾. 2005년 서동축제의 주제는 “서동에서 무왕까지, 그 생생한 이야기”로, 2006년에는 “국경을 초월한 서동선화 사랑 이야기”이었다. 주제는 서동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일대기나 서동과 선화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를 중심적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동이 익산에서 탄생하여 성장하였고, 무왕에 등극하여 백제 수도를 익산의 왕궁지역으로 옮기려 했다는 설이나 미륵사를 창건한 역사적 사실 등으로 익산과 서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제 면에서 인물 중심 축제인지,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인지, 백제문화를 주제로 하는 것인지의 구분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서동을 중심 주제로 축제를 진행하되,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하여 축제의 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익산서동축제는 그 지역에 전승해온 민속적 놀이와 설화라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나비축제는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가능한 소재로 축제를 시작한 점에서 지역적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잡았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안동탈춤축제는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함평나비축제는 나비와 곤충, 꽃을 대상으로 하는 실물을 축제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축제 주제의 이미지 형상화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서동축제는 설화, 인물, 사랑 등을 주제로 하여 축제 주제의 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서동요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로, 향가 중에서 가장 로맨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동, 즉 무왕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마장사로 변장, 향간에 부르게 했다는 4구체 향가이다. 작품 속의 무왕은 익산 금마면에서 태어난 백제 30대 왕이며,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공주이다. 한국문학사상 최초의 향가로 고대 동요의 전형적 성격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표 4> 지역축제 주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주제	하회탈, 하회별신굿탈놀이	나비, 곤충, 꽃	서동, 서동선화사랑
주제지역반영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안동하회마을에 600년간 전승	지역적 특성과는 관계가 없으나 독창적임	서동은 익산에서 성장하고, 무왕으로 등극한 이후 미륵사를 창건하였음
주제의 선명성	분명한 주제와 탈춤이라는 연행구조를 갖춤	실물인 나비, 곤충, 꽃을 대상으로 주제의 선명성이 부각됨	설화, 인물, 사랑의 주제는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움

2) 주민참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의 하나로 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축제서포터즈 운영으로 보았다. 서포터즈단은 2005년에 280명 정도가 신청하였고, 탈춤축제에 120명 정도가 투입되어 공연, 관광, 안내 등에서의 성의 있는 지원활동을 담당하였다는 평가이다(안동대 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5:9). 이들 서포터즈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각 공연단체들의 원만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 서포터즈단은 3월에 모집하여 8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여 축제에 대한 가상적인 체험을 통해 안동지역 문화행사 전반에 걸쳐 투입되어 충분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에서도 안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문화단체들의 참여가 공연과 체험분야에서 이루어졌다⁸⁾.

함평나비축제에서도 주차단속, 자원봉사, 화장실 청소, 문화관광 자원봉사 해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특히 축제장에 전시될 나비와 곤충을 비롯하여 가로화단 가꾸기, 꽃마차를 제작하여 포토 장으로 제공하는 일, 축제기간에 교통안내하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경험하도록 하였다. 나

<표 5> 주민참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자원봉사	서포터즈단 중심으로 운영, 이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3월에 모집하여 8차례 교육 후 축제에 투입	주차단속, 자원봉사, 화장실 청소, 문화관광 자원봉사 해설, 화단 가꾸기, 꽃마차를 제작,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센터중심으로 참여, 안내, 교통질서, 공연보조 등
프로그램 참여	지역단체가 참여운영한 프로그램은 약 24개이었음	각종 체험프로그램 직접 운영	시민공모프로그램 참여

8) 2005년도 지역단체가 주관한 참여행사는 약 24개 프로그램이었다.

비축제의 많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주민들과 주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축제에서 단순한 주민참여에 그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익산서동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공모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였다. 시민공모프로그램은 축제 주제에 관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익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안내, 공연보조, 교통질서 등과 같은 분과에 시민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축제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계구조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앞의 두 사례와 비교된다. 외부인을 축제운영본부장으로 영입하여 2년간 축제를 집행함으로써 지역의 내부 인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지 못하여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민참여는 3개 지역 모두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3) 조직

조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를 실질적으로 치루는 조직은 누구이며, 조직 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조직은 얼마나 안정적인가의 측면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조직구조는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그 아래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획연구, 공연연출, 사업운영, 관광홍보를 포함한 4개의 분과위원회와 안동시문화담당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각 분과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자문하기 위하여 62명의 분과위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고, 사무국 산하에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축제운영연구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간, 집행위원들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1998년 이후 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축제추진구도가 정착되었고, 각 분과위원장들은 대부분 안동권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었다. 이 연구소는 대학교수와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이 핵심적인 구성원들이었으며 이들은 높은 자긍심과 열정으로 안동의 문화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이 대거 각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매주 분과별 토론회를 거치고 자치단체장이 적극 이들을 지원한 결과 파트너십은 최고조에 달했다.(문태현, 2004:354)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연구소,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활한 파트너십을 이룬 것이 축제의 성공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또한 집행위원들은

9) 총 6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간사와 탈춤사무국장을 포함하여 8명이 참여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집행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정,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질적으로 축제를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화 없이 책임을 맡으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⁰⁾.

함평나비축제의 주관은 지역인사들이 중심인 추진위원회이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모든 행사는 문화관광과가 기획하여 각 부서가 행사를 분담하여 집행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축제의 필요한 부문에만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았다. 함평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후원으로 축제집행에 있어 군의 모든 조직이 책임감을 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군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군과 지역주민간에도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곤충연구소는 나비 생육과정 연구를, 목포대학교는 축제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향제시를, 누부티스라는 업체는 나르다 브랜드 및 캐릭터의 개발을, 지역사회는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함평군이 추진하는 지역축제에 조직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현호, 2004: 23) 또한 초기 나비축제의 담당공무원이 2006년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반적인 축제집행조직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부터는 민간인인 문화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점차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익산서동축제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민간기구인 마한민속예술제가 주관해왔다. 그러나 2005년도 시의회는 축제주관단체인 마한제전위가 축제예산을 집행한다는 조례를 폐지하고, 축제에 대한 집행권한을 시로 이관하였다. 시는 민간기구인 서동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이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2005·2006년도 축제운영본부장을 외지인으로 선정하여 축제운영본부를 구성하여 축제를 집행하였다. 추진위원들은 시에서 요구한 축제에 산심의회와 결산기능을 가질 뿐 아무런 기능이 없었다. 추진위원들은 시가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에 그치었다. 그래서 운영본부와 추진위원들간, 추진위원들간, 지방정부와 추진위원들간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축제운영본부는 외지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나 지역주민들과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주관단체의 잦은 변경 등으로 축제조직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축제 조직의 운영주체 면에서 보면 안동탈춤페스티벌은 민 주도 중심으로, 함평은 관 주도 중심으로 운영주체가 비교적 확실한 반면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관이 주도하되 운영은 민이 담당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도 안동탈춤페스티벌과 함평 나비축제는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된 반면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의 잦은 변동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네트워킹에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함평나비축제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네트워킹

10) 문화담당과장과 집행위원장은 6년 이상 축제에 관여하였다.

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익산서동축제는 불분명한 운영주체로 집행조직이 지역과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지역축제 조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축제운영조직	민주도, 민운영	관주도, 관운영	관주도, 민운영
조직의 안정성	안정성 높음	안정성 높음	안정성 낮음
네트워킹	네트워킹 높음	네트워킹 높음	네트워킹 낮음

4) 평가

축제의 성공은 객관적인 평가와 그 결과의 피드백에 달려 있다. 안동국제탈춤축제추진위는 초기부터 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¹¹⁾. 평가는 처음부터 대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축제가 끝나면 해마다 공개적인 평가대회를 가졌다. 평가대회에 공식적인 참여자는 탈춤축제추진위원, 축제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관련 시민단체, 지방의회의원 등이며, 다수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경북 도청을 비롯한 타 기관에서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보고대회 시에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의회 의장,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의 중요인사들이 거의 참여하므로 문화관광정책을 종합평가하는 기회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회를 통하여 축제결과에 대한 장단점이 낱알이 밝혀지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법도 심도 있게 논의된다. 평가대회 시에 지적된 안건들은 지방정부나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년도 축제에 반영된다¹²⁾. 결과적으로 축제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가 다음 년도에 철저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함평나비축제는 축제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다¹³⁾. 함평군은 이러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이외에 내부적으로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내부평가보고서에서(함평나비축제추진위원회, 2006) 성과분석, 성공요인¹⁴⁾, 아쉬움, 앞으로

11) 안동국제탈춤축제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잘 잘못을 정확히 가려내고 평가보고대회를 통하여 축제 관련자들로 하여금 이들 잘 잘못을 철저히 주지시켰다.

12) 평가에 대한 지방정부나 지역축제의 추진위원들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평가가 형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2005년, 2006년도 함평나비축제의 평가는 목포대학교의 이장주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음.

14) 함평축제 추진위원회는 성공요인으로 먼저 축제의 소재가 독특하다는 점 둘째, 해마다 프로그

축제방향, 프로그램별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다음 해 축제에 철저히 반영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다음 연도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익산서동축제는 지역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여 축제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¹⁵⁾. 이제까지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으나 아직은 이러한 평가 작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평가보고회¹⁶⁾에는 축제 관련된 조직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축제 평가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7> 축제평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평가기관(2005년)	안동대학교	목포대학교	원광보건대학
평가중요성	매우 중요하게 인지	매우 중요하게 인지	평가에 대한 낮은 중요성
평가반영	철저하게 반영	철저하게 반영	결과를 반영

5) 전문성

전문성은 크게 축제주제와 축제운영의 전문성으로 구분된다. 축제주제의 전문성은 다른 축제와 구별되게 하는 확실한 콘텐츠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축제운영의 전문성은 축제에 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집행위원회와 안동권발전연구소는 주기적인 발표와 연구를 통하여 축제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축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1년도에는 탈춤축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발표대회를 가졌다¹⁷⁾. 2002년에는 그 동안 축제의 총결산서인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이라

램이 새로워진다는 점 셋째,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어 축제를 준비하는 점, 넷째, 군민이 뚝뚝 뭉쳐 적극적인 봉사를 하는 점 다섯째, 축제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점 등으로 보았다.

15) 2005·2006년은 원광보건대학에서 평가를 하였다.

16) 2006년 평가보고회는 축제추진위원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는 정도에 그치었다.

17) 발표 논문은 안동시 축제구도의 재정립과 축제도시화 방안, 중심적 연행의 구조조정과 육성방안, 주변적 연행의 구조조정과 육성방안 등이었다.

는 백서를 발간하여 축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축제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탈춤축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위원들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해마다 2-3곳의 외국 축제를¹⁸⁾ 견학하여 벤치마킹하였다. 이는 축제문화와 운영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문태현, 2004:354).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곤충연구소를 설립하여 나비와 곤충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나비, 곤충, 꽃에 관한 많은 콘텐츠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다. 축제에 관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축제담당 공무원들에게 학습기회가 자주 제공되었다. 축제운영에 관한 전문성 증진 방법으로는 국내외의 많은 축제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축제담당 공무원을 축제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였다. 처음 나비축제 시작당시의 축제담당자가 2006년에도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공직의 순환보직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축제의 연속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¹⁹⁾.

익산서동축제의 경우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5과 2006년에는 외부 지역축제 전문가를 축제 운영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서동축제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주관조직의 잦은 변경과 더불어 축제 일정에 쫓기어 축제를 치루는 것에 관심을 두어 축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축제운영조직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조결여로 축제운영에 대한 경험이 지역에 축적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결과적으로 지역축제가 단기간 준비하여 치루는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하여 지역축제의 전문성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표 8> 전문성 증진 연구기관과 전략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연구기관	안동권발전연구소와 집행위원회	곤충연구소	없음
전문성 증진전략	지속적 연구, 해외축제 벤치마킹	국내외 축제 벤치마킹, 담당공무원 장기근무	외부전문가 영입

18) 벤치마킹한 축제로는 1999년 프랑스 아비뇽축제,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 페스티벌, 영국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와 프린지 축제, 독일 뮌헨 맥주축제이었다. 2000년에는 니스의 카니발축제, 프랑스 망퐁레몬축제, 베네치아의 카니발, 일본의 하카다기온야마사축제이었으며 2001년에는 브라질의 리우 삼바축제이었다. 2003년에는 일본 홋카이도 소오란 마쓰리 축제를 벤치마킹하였다.

19) 함평군 문화관광과 담당직원과 과장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9> 축제인프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익산서동축제
축제장소	하회마을과 탈춤축제장	함평천주변공원, 자연공원	중앙체육공원
축제이미지와 장소의 적합성	탈춤축제와 하회마을은 잘 부합됨	나비축제와 생태공원은 잘 부합됨	역사문화축제와 체육공원은 잘 부합되지 못함
편의시설	고정적 축제장소 확보, 공연장 및 전시시설 및 충분한 주차장 확보, 추가적인 시설 확장이 가능함	고정적 축제장소 확보, 나비와 곤충생태전시관 확보, 충분한 편의시설, 추가적인 시설 확장 가능	고정적 축제 장소 미확보, 공연 및 전시관 미확보, 추가적 시설확장이 어려움

6) 인프라

축제가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는지, 이 장소가 축제의 주제와 잘 부합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강변축제장과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변축제장은 2,700여석의 고정적인 탈춤공연장을 갖추었다. 또한 하회마을은²⁰⁾ 그 자체가 이미 축제를 치루기 위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하회마을 내에도 상설 탈춤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하회마을은 마을자체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과 탈춤의 이미지는 잘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고정적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축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시설은 잘 구비되어 있다. 즉, 낙동강 고수부지에 3,350면, 하회마을에 520면을 확보하였고, 그 외에도 예술회관 신축부지 등에 총 3,932면을 확보하였다(안동대 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5:13).

함평나비축제는 1,000만평의 함평천 수변공원과 좌우의 보리밭을 축제장소로 활용하였다. 축제장에 들어서는 주변의 수 만평 논에는 자운영을 파종하고, 행사장 앞 6,000여 평 야산에 철쭉 10만 구루를 심어 나비를 형상화한 꽃동산을 조성하였다. 더불어 함평교 난간의 나비문양과 함평천변의 나비형상 조형물, 수산봉에 이팝나무와 연산홍으로 거대한 나비형상을 설치함으로써 관람객들을 동심과 환상의 세계에 빠지도록 노력하였다. 조성된 축제공간은 나비축제가 주는 이미지와 잘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비와 꽃 등을 전시하는 고정적인 생태전시관을 갖추었고,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도 마련하였다. 계속되는 함평축제를 통하여 조직위는 새로운 인프라를 하나씩 추가 건립하였다. 또한 함

20) 하회마을은 전래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마을이다. 마을전체가 중요 민속자료 제 122호로 지정된 마을로서,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된 여러 유형·무형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평군은 나비축제를 세계나비곤충엑스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6년 7월에 자연생태공원을 개원하였다. 공원의 면적은 124,166평이며, 사업비는 총 220억이 투자되었고, 전시시설과 관람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졌다²¹⁾.

익산서동축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시설은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며, 익산시의 최대 시민이 모여 사는 영등동 일원에 자리 잡고 있어 축제장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서동축제가 역사문화축제인 점에서 보면 현재 중앙체육공원은 축제의 이미지와는 잘 부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연이나 전시를 위한 공간은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측면에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평나비축제는 축제를 집행하기 위한 고정적인 훌륭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축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서동축제는 축제를 치르기 위한 고정적 장소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며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측면에서 안동탈춤페스티벌과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장소와 편의시설을 장기적으로 확장해 가는 반면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분석결과의 논의 및 함의

분석 결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앞서 논의한 지역축제의 성공요인과 관련한 변수들에서 모두 잘 갖추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평 나비축제도 비교적 잘 갖추어졌으나 축제 운영 전문성이나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 측면에서 다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익산서동축제는 축제의 주제와 평가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에서 다른 두 개의 사례보다는 성공요인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제의 측면에서 탈춤이나 나비의 경우에는 축제의 소재와 대상이 분명하여 축제의 주제를 형상화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득력이 높았다. 반면 서동설화의 경우에는 주제가 뚜렷하지 않아 주제를 형상화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참여측

21)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2008년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장소로 자연공원을 이미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엑스포 이후 자연생태계의 구조, 동식물의 형태 등 과학적 관찰적 자료를 근간으로 체계적인 서식처를 조성하여 자연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조성된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유료공원으로 상시 개장하여 수익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면에서 분석사례의 축제들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은 이들 주민참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함평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도록 한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외에 시민공모라는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사례와 차이가 있었다. 조직요인에서 탈춤페스티벌과 함평나비축제의 경우에는 매우 구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탈춤페스티벌의 경우에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잘 조직화가 이루어져 조직간 네트워크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비축제의 경우에는 행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이 집행하여 조직화 정도가 높았고, 군민들과의 협조도 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공무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전형적인 위원회 조직이어서 조직화가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간 네트워크의 정도도 약했다. 또한 공조직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축제에 직접적인 관여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년이나 2년 단위로 순환하였다. 또한 축제 운영조직도 자주 바뀜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보다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평가의 측면에서 세 개의 사례 모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탈춤페스티벌은 경우에는 평가가 혹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함평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보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다른 축제보다 비교적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탈춤페스티벌조직위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체연구와 해외 축제의 관람을 비롯한 많은 노력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함평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자체의 콘텐츠는 비교적 잘 갖추어졌으나 행사에 대한 전문성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축제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근무를 통해서 순환보직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지속적인 다른 축제의 벤치마킹과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동축제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축제의 주제에 관한 연구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이벤트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 인프라 측면에서 탈춤페스티벌은 탈춤축제장과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함평나비축제의 경우에는 함평 천과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축제 주제에 맞는 공간이 갖추어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있었다. 반면 서동축제의 경우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장소가 축제의 주제에 잘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소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서동축제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축제 추진조직의 안정성의 증대, 축제를 치루기 위한 공간이나 장소의 마련과 더불어 편의시설의 증대, 주민참여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축제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의 증대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평나비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조직을 관에서 민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 축제 자체의 콘텐츠는 잘 갖추어졌으나 축제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증대, 자원봉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 분석

변수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함평나비축제	서동축제
주제	지역적 특성화 정도	◎	○	◎
	축제주제 향상화 용이성	◎	◎	△
주민참여	자원봉사활동의 정도	◎	◎	○
	프로그램 참여정도	◎	○	○
조직	운영주체의 네트워킹	◎	◎	△
	조직의 안정성	◎	◎	△
평가	평가 결과 반영정도	◎	◎	○
	평가의 중요성 인지	◎	◎	△
전문성	축제 주제에 대한 전문성	◎	◎	△
	축제 운영에 대한 전문성	◎	○	○
인프라	축제 장소 적절성	◎	◎	△
	축제 편의시설	◎	◎	△

(◎:아주 좋음, ○ : 좋음, △:보통)

IV. 결 론

지역축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의 구분은 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도 어느 입장 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축제의 운영이 효율적이었는지,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았는지 등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의할 수 있다. 지역축제 성공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5개의 변수를 추출하였고, 이외에 축제인프라의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축제에 관한 6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세 개의 지역축제를 비교분석 하였다.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 2개의 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간의 비교를 통해서 축제간 성공요인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공요인에 관한 변수를 구체적인 축제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논문에서 선정한 성공요인의 변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에서 제시한 지역축제 성공을 위한 6개의 변수가 분석 사례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를 갖으나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보다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명쾌한 축제 주제, 주민참여의 증대, 조직의 네트워크와 안정성 증대, 객관적인 평가, 전문성의 향상, 축제인프라의 구축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2005). 제10회 강진 청자문화제.
- 강형기. (1999). “지역축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지방행정」. 지방행정공제회.
- 김성혁 역. (1996). 「일본의 관광사업-지역문화활성화의 업무지침」. 서울:일신사.
- 김춘식 외 2인. (2005). 「익산서동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지역발전연구소.
- 김현호. (2004). “향토자원의 활용의 특성과 과제”. 「로컬거버넌스와 지역발전」.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 노병찬. (1996). 「대전발전과 이벤트활성화」. 대전충남발전포럼, 3(1).
- 문태현. (2004).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정책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분석-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주성. (2002).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화연구」제7집. 한국문화학회.
- 서희석 외. (2004). “지방정부 지역축제 성공요인의 우선순위 결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1권 제2호.
- 송태갑. (2004). 「광주지역축제의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안국찬. (2001).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책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5조사연구」.
- 이흥재. (2005).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행사의전기획과정 강의안」.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 장순희. (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발표논문」.
- 정강환. (1996). “지역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와 지역축제 진흥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3호.
- 임재해. (2000).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 참여자치연대(2001). 「익산 마한민속예술제 평가보고서」.
- 채용식. (2000). “횡성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연구」. 제3호.
- 한양명. (2005). “요사코이소란마츠리를 통해서 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민속학」. 제28집.
- 함평군. (2006). 「제8회 함평군나비대축제평가보고서」.
- 함평나비대축제추진위원회. (2006). 「여덟 번째 만들어진 나비축제」.
- Getz,Donald. (1997). *Event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 Milman, Ady & Pizam, A braham. (1988). “Social Impacts of Tourism on Central Florida.”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100-140.